

보도시점 2025. 4. 10.(목) 오전 배포 2025. 4. 10.(목) 10:00

대산해수청, '현장에서 배우는 해양안전' 대천항서 실전 시연 행사 개최

- 구명뗏목·신호홍염·소화기 실습... 유관기관 협업 통한 현장중심 안전 강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4월 9일(수요일) 대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신한고속훼리호에서 연안여객선 선박 및 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안전 캠페인 및 안전설비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연안여객선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선박 종사자의 비상대응 능력과 안전설비 사용 숙련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명뗏목 전개 시연, 신호홍염 작동, 소화기 사용법 등 실제 사용환경을 반영한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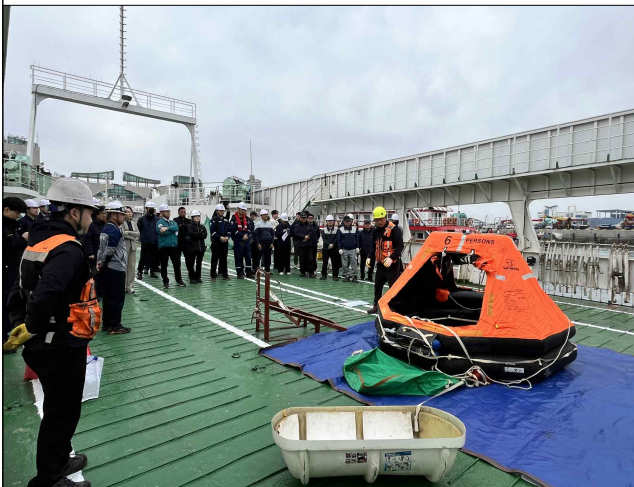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보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의지를 함께 나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황성오 청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연을 넘어, 선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실질적인 안전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균 (041-660-7621)
		담당자	주무관	김동국 (041-660-7636)



해양안전 캠페인



안전설비 시연